



남원 도동동 등, 찾아가는 이불세탁 서비스 협약

남원시 도동동(동장 소선자)은 지난 15일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은용)과 '찾아가는 이불세탁 서비스'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 자원봉사자 등을 통해 의뢰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복지관 이동 세탁 차량이 방문해 세탁·건조 후 전달해 드릴 계획이며, 세탁된 이불을 배달하는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취약계층 생활실태 점검과 인부 확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불 빨래 고민을 덜어줌과 동시에 주거 환경 개선으로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은용 관장은 "찾아가는 이불세탁 서비스로 많은 분들이 조금이나마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소선자 동장은 "취약계층의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대강면 지사협, 2024년 제1차 정기회의

남원시 대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종표, 권기환)는 지난 15일 대강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4년 제1차 정기회의를 16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특화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지역 특화사업 추진 및 지역 자원발굴 활성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복지기금대 운영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올해 2024년에는 △대강면 사랑나눔 1계좌 갖기 △하하호호 마실탕에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검진 △소망 배달부 △대강가이버 출동 등 지속 사업과 올해 신규사업인 △보송보송 사랑의 빨래방 △반짝반짝 사랑의 집 청소 사업 등 다양한 맞춤형 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기환 민간위원장은 "민간과 공공의 소통·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지원, 복지공동체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천동농협, 노래교실 증강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은 14일 농협 2층에서 2024 설렘 희망을 노래하다 라는 주제로 한 달 동안 열렸던 노래교실이 증강했다.

노래교실은 2월13일부터 3월14일까지 5주간 주2회 실시했으며 농사일로 힘든 조합원에게 자기계발과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고 활기찬 농촌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구천동농협 조합장은 "노래교실을 통해 우리 조합원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조합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익명의 교수, 전북대 '천원의 아침밥' 후원

오랜 세월 전북대에 근무하다가 퇴임했다는 모 교수가 양 오봉 총장을 찾아와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후원하고 싶다고 하며, 1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북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농식량부 2,000원, 지자체 1,000원, 전북대학교 총동창회와 발전지원재단에서 1,000원 등을 지원해 매일 200명의 학생에게 따뜻한 아침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하루 100명으로 시작해 대학본부와 여러 대학 동문들의 후원이 이어지며 하루 150명으로 확대했다. 또다시 올해 200명으로 확대해 2만4,000명의 학생이 든든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익명의 기부자는 "최근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창 나이인 우리 대학 학생들이 든든한 아침밥을 먹으면 하는 마음에 후원을 결심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후원이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주=정은성 기자

‘주민들 복지향상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남원시 대강면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 협약 체결

남원시 대강면(면장 김종표)은 지난 14일 남원중앙로타리클럽 3670지구(회장 양재우)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종표 면장, 황의돈 발전협의회장, 권기환 이장협의회장, 이은경 생활개선회장, 양재우 회장 및 회원 면맞춤복지팀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지원 주민을 위한 연계사업 발굴 및 인적·물적 자원교류 협



물적 지원을 적극 활용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양재우 회장은 "대강면 뽕송뽕송 사랑의 빨래방 사업을 지원하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지역에 나눔과 봉사를 적극 실천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종표 면장은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인적·물적 지원을 적극 활용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고창군종합노인복지관 급식봉사활동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난 14일 고창군종합노인복지관을 찾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급식봉사활동을 가졌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매달 고창군종합노인복지관을 찾아 급식봉사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이날 복지관을 방문한 신 300여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군정발전을 위한 건의 및 애로사항 등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심덕섭 고창군수는 항상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하는 30여명의 시설종사자를 격려했다. 동시에 군의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소개하고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창군은 현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고창용계 고향자복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3월25일~27일)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10개월~11개월)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폭육·이미용비 지원(10만원) △무료경로식당 운영 △재가노인 식사배달(주5회) △경로당 소파지원

등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매달 급식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듣고 군정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며 "모두가 살기좋은 고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식품산업연구원-진안홍삼연구소, 2년 연속 고향사랑에 앞장

고창군(제)고창식품산업연구원(원장 이희권)이 지난 15일 고창군과 진안군의 고향사랑기부제 해당 지자체에 각각 상호 참여하기로 협약했다.

이번 고향사랑기부제는 상호 기관의 기부제를 희망한 임직원들이 상대 지역에 대한 기부를 통해 지역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2년 연속 진행했다.

특히 진안 홍삼연구소 고향사랑기부자들은 고창의 우수한 답례품 중 임성규계 구구멜리말랭이와 고향풍천장어의 선호도가 높았다. 이번 계기로 고창군의 우수 특산품의 홍보도 되는 계기도 되었다.

(제)고창식품산업연구원(원장 이희권)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연구원 상호간에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협력과 연구결과에 대한 공유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키워 상호 기관이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NH농협 무주군지부, 제휴카드 적립금 전달

NH농협은행 무주군지부(지부장 김범식)는 지난 14일 무주군청 제휴카드사용에 따른 지역발전기금 5600만원을 무주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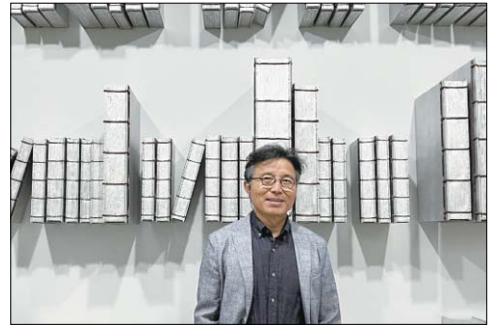
이날 전달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NH농협 김범식 지부장이 참석했다.

무주군과 NH농협은행 무주군지부는 약정을 통해 법인카드 및 보조카드 등 각종 카드 사용액의 0.5~1%를 기금으로 적립하였으며, 이는 주민복지 증진 및 무주군 발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범식 지부장은 "적립된 기금이 지역발전에 사용돼 보람을 느낀다"며 "NH농협은행 무주군지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역발전을 위한 기금 전달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대 엄혁용 교수, 제13대 기초조형학회 회장 취임

전북대학교 엄혁용 교수(예술계 미술학과)가 제13대 한국기초조형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전했다. 임기는 2026까지 2년이다.

한국기초조형학회는 예술·디자인 전 분야에 관련된 기초조형을 중심으로 학문적 위상을 정립하고 '창조적 조형'의 사회적 구현을 위해 1999년 7월 15일 창립, 2023년 기준 9,408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생활·문화·예술분야 '기초조형'의 학문적인 발전을 위해 지난해 타이완 국제최대작품전, 멜버른 국제최대작품전, 아시아 기초조형연합학회 초대작품전(일본), 레스터 국제최대작품전, CIAP초청 세종특별전, 샌프란시스코 국제최대작품전 등을 펼쳐 왔다.

엄혁용 선임 회장은 "예술 및 디자인분야의 세계화를 위해 다양한 국제적 활동과 사회공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정은성 기자



정읍시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교실 25일부터 운영

정읍시치매안심센터가 시민의 치매 예방을 위해 60세 이상 인지선별검사 결과 정상군을 대상으로 '기억이 새록새록' 치매 예방교실을 오는 25일부터 운영한다.

'기억이 새록새록' 치매예방교실은 인지학습, 원예, 공예, 운동활동 등을 통해 기억력, 집중력, 자남력 등의 인지기능을 유지·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치매안심센터에서 5월까지 주 2회 운영하며, 프로그램 사전·사후 검사를 진행해 인지선별, 우울도 기억력 감퇴 등의 변화를 평가하고 치매인지개선 교육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센터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읍면 경로당 등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백세누리 너트튼교실'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치매예방교실은 12월까지 진행한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예방교실 외에도 경로인지장애를 진단받은 자와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인지기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대상자별 맞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참여 신청과 자세한 문의사항은 치매안심센터 ☎ 063-539-6958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만성산업 권호영씨,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유)만성산업 권호영 소장이 15일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최고액인 500만원을 기탁했다.

(유)만성산업은 모래 및 자갈 신품 골재를 채취하고 혼합 골재를 생산하는 업체로, 평소에도 지역발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기업이다.

특히, 권호영 소장은 순창이 고향은 아니지만 순창군 동계면 소재 사업장 근무를 인연으로 순창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여 매년 상반기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하반기 불우이웃돕기 성금 500만원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

권호영 소장은 "일회성이 아닌 사회환원을 실천하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부를 했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순창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도 "뜻깊은 순창 사랑을 보여주시는 권호영 소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보내주시는 소중한 마음을 원동력으로 삼아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회답했다.

/순창=이양원기자



진안읍,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 직무교육 실시

진안읍 진안읍(읍장 광동원)은 15일 진안 문화의집 마이홀에서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클린하우스는 생활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 쓰레기를 내놓도록 만든 시설이다.

진안읍 청결지킴이는 총8명으로 각 마을에 설치된 클린하우스를 쾌적하게 관리하고 있다.

직무교육에서는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영상을 시청하고 불법투기 행위 안내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했다.

광동원 읍장은 "청정한 진안읍 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진안읍 환경질서에 앞장서고 계신 지킴이 분들께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기자